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구원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탈을 벗으려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창기부터 하나님에게 맡기는 생활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과는 상관없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십일조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십일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한테 전례를 맡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일조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승리제단 식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제단 식구의 자격이 있어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녹명되게 되어 있고, 생명책에 녹명되지 않고서는 결코 천당 고개를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써여 있는 대로 여러분

들은 책임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천당문을 열고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 아는 바보' 가는 길이다

이 사람은 되는 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을 하거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에 속합니다. 이 사람은 끈이끈대로 살았지 언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모님의 말씀이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걸로 확신을 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시 넘어야 할 그 아리랑고개를 꼭 넘어가야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바보가 가는 길이지요. 령을 피우고 갖은 수단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바로 끈이끈대로 밟는 사람이나 가는 길입니다. 요령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갑니다.

이 길은 그대로 적당히 되어지는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아리랑고개를 꼭 넘어가야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피해서 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리랑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합니다. 걷다가 힘들다고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피해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쉽게 강론하시는 구세주 회회성남

이 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 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한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안하고 천당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 영생의 길은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책임, 자기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꼭 이행을 해야 하는 거지 자기가 해야 할 의무사항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와야 됩니다. 고지식한 성품이 이 사람에게 없었

으면 절대로 이긴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린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가족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복종을 한 것입니다. 복종을 하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놓고 대성통곡도 해보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복종하는 성품, 그런 고지식한 성품이 있었기에 이 사람 개인의 사정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돌보지 않으려니까 말할 수 없이 흐느껴 울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이기게 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애걸복걸 애원했습니다. 아무리 울고 울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실상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란죄를 짓고 죽으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밀실'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았 습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 들어갈 때는 '이긴자가 되면 살아서 나오지만 이긴자가 못되면 살아서 못 나간다'고 결심을 하고 밀실에 들

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서 기뻐서 웃었다고 '웃는 음란죄'를 졌다고 하니 이 사람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속소에 들어가서 '이 길은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한 후 죽기로 결심을 하고 누가 들어올까봐 방 안으로 문을 잠그고 목 매달아 죽을 끈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 영모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게 놀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노느냐!"며 막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영모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인지만 그대로 무릎을 꿇고 영모님한테 "잘 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웃으면 바로 웃는 음란죄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어찌 웃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목 매달아 죽을 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로 자존심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출발을 해, 거의 거의 다 됐어. 조금만 참으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영모님 제가 잘못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모님이 방 안에, 금새 눈 앞에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모님이 문을 열고 나갔나 하고 문을 잠근 고리를 보니까 그대로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모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오셨던 거죠. 하나님이 영모님의 몸을 입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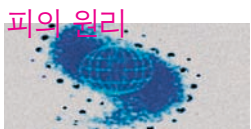
사람의 방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이긴자가 완전히 승리자가 되어서 구세주 노릇을 해야 하나님도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구세주 노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시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마음대로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결행을 하면 죽을죄가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하는 거고 허락을 안 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지 못 지키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써야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원이라면 10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원을 쓸려면 하나님한테 10원을 바치고 써야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라기서(3장 10절)에는 하나님한테 십일조를 바치라 하고 했던 겁니다. 십일조를 바치면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2003년 1월 17일 말씀 중에서



피의 원리

(연재)不老長生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원리, 인간의 생로병사와 길흉회복까지도 해결

죽음이라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실은 아직도 죽음이란 것이 어떠한 원인과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성급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자. 그보다 앞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한 놀라운 결과물이 그 가능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 인류 앞에 놓인 죽음이라는 커다란 문제는 그냥 미해결 과제일 뿐이지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도 인과법칙에 해당돼

언뜻 죽음의 결과만 놓고 보면 '죽음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판단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란 단 하나도 없다. '죽음문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무작정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해서 인간의 운명이 죽기

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죽음의 결과만 보지 말고 원인과 과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도 과학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바로 지독한 독선이 되고 만다는 것쯤은 알 것이다.

죽음의 역사가 아무리 오래되고 현재에도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논리상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죽음의 이유와 원인, 죽음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까. 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죽음의 이유와 원인,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나타날까. 인간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여기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못한다면 죽음만이 절대 진리라고 우기지도 말고, 죽음이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좀더 견դ하게 학구적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을 벌어서 먹고 자고 살고 죽어가는 일회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에만 열중하지 말자! 이제는 좀더 우리 인생의 본질적 의문인 죽음

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피는 성숙한 지적 철학적 소유자의 마음자세로 진지하게 알아가 보자. 다른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혀서 전문가가 되려는 의지와 노력의 바로 인간의 죽음 문제에도 집중된다면 생로병사의 해결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불가사의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고 있는 사이에도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들이 다 죽음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을 때,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사실을 놓고 그 시대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집중 연구한 흥미로운 작가가 있다. <죽음 앞의 인간>을 쓴 필립 아리에스(85년 작) '죽음의 역사'를 서구 기독교 문명 속에서 추적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학의 영역을 넓혀 냈다. 책에서 그는 일기와 편지, 유언장은 물론 그림과 조각, 문학작품, 묘비명과 장례제도 등 개인적이고 무의식적 자료들을 샅샅이 훑으면서 죽음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고찰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간 의식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진중하게

들러오는 소리를 알아채고 일찍이 그것의 불가사의를 파헤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죽음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쉽게 말한다. 과연 그럴까? 어떤 학자가 지적했듯이 평소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의 상황에 처하면 더욱 심한 불안에 느끼는 법이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죽음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허무를 느꼈던 것이다. 때문에 죽음을 잊으려고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것이다. 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첫째, 잘못된 신념을 가진 그 사람 자신에게만은 그 신념은 삶의 유희성에서 파생되는 무의미와 허무성을 잊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죽음에 대한 신념체계들은 이 세상의 불명등과 모순 등 불합리의 보상원리로서 작용했다는 것이다.

셋째, 죽음관들은 암암리에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윤리적 측면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여러 죽음관들이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 공헌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다. 인생에게 어떠한 죽음관일지라도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한 어떠한 죽음관일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의 차원에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믿음은 소수는 만족시켜 줄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를 보아 죽음이라는 것도 막연한 믿음의 체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다 보면 보다 현실적이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인간 몸이 죽지 않는 길의 가능성도 믿음의 차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한다. 그것이 죽음문제라고 해서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는 긍정적

태도로의 접근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다. 이제 죽음이라는 괴물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감감한 죽음의 세계로의 모험을 단행해 보자.

죽음문제를 해결하는 피의 원리

<피의 원리>는 바로 죽음을 파헤치고 정복하는 무기가 될 것이며, 능숙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피는 세상 종교처럼 막연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생각하는 힘을 제공하는 가장 인간적이고 생동적인 개념이다. 그러한 (피)의 개념으로써 죽음이라는 전제 아래의 뒤틀리고 왜곡된 허구적 미신적 종교적 개념을 부수버리고 탄탄한 불로불사의 기틀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인간 속에 뜨겁게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붉은 피, 생명의 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의 보고! 그 신비한 세계로의 여행이 피의 원리로 시작된다! 인간과 우주 만물의 기원, 생로병사와 길흉회복의 제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진단하고 통쾌하게 설명해 줄 것이다.*